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 학동기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Dual-Earner Couples

수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崔圭蓮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University of Suwon

Associate Prof.: Kyu Reon Choi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dual-earner couples, and it placed emphasi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dual-earner couples who have school-aged children. The sample consisted of 265 husbands and wives in dual-earner families living in Seoul.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Wives' marital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wives' perception of inequity in the division of family works, joint leisure activities, sexual satisfaction, wives' job satisfaction, wives' satisfaction with marital communication and perceived benefits resulting from wives' employment.
2.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sexual satisfaction, role conflicts, perceived benefits resulting from wives' employment and the degree of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본 연구는 1991년도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음.

3. Wives'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role conflicts, perceived sexual problems caused by their employment, wives' job satisfaction, sex role attitude and perceived inequity in the division of family work.
4. Husbands'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role conflicts, the degree of their housework participation, their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sexual problems caused by wives' employment.

I. 문제의 제기

우리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여성의 취업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절대적 빈곤이 어느정도 해결되고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저학력 미혼여성의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었고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증가추세에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기혼여성의 취업율증가는 소비수준의 향상과 함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어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가 유발된데 주된 이유가 있으며 사회참여와 자기발전에 대한 욕구도 기혼여성의 취업율 증가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맞벌이부부는 외면적인 부부의 역할 변화만이 아니고 내면적인 태도나 관계의 변화까지 가져온다는 점에서 새로운 부부유형으로 간주된다. 과거의 전통적인 부부와는 달리 맞벌이부부는 역할의 공유, 동등한 의사결정, 평등한 동반적 관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부부유형으로 추구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인의 취업으로 야기되는 역할변화와 문제점에 대해 부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며 주로 가사분담 실태와 부인의 역할과중과 역할갈등, 부부권력, 결혼만족도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부의 심리적 건강과 우울증을 부부관계와 관련시킨 연구가 거의 없으며 맞벌이남편을 포함한 역동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도 매우 적다. 특히 우리나라의 맞벌이부부에 관한 연구들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이론적 뒷받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지속성과 연구결과의 일반화, 이론모델의 정립면에서 문제가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우리보다 앞선 서구사회에서

는 맞벌이부부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많으며 부부의 역할변화와 그에 따른 부부관계의 역동적 변화, 권력,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성, 우울증이 주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대체로 맞벌이부인이 가정내 역할분담이나 부부권력면에서 비교적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여성의 역할확대와 태도변화 속도에 비해 남성의 가정내 역할변화가 늦음으로써 남편과 부인의 현실적 상황과 기대간의 지체현상도 있음이 보고된다(Pleck, 1985; Spitze, 1988). 최근 남편의 가사참여, 부부권력,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을 설명하는 이론모델과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유력한 가설로 갈등가설, 자원가설, 공평가설등이 제시되었고 이외에 태도 및 직업 관련가설도 보고된다.

이와 같이 외국의 맞벌이부부 연구에서 결혼만족과 우울증이 주요한 주제로 부각되는 것은 결혼만족도가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과 가족전체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때문에 과거부터 많이 연구되는 주제이지만, 역시 우울증도 개인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편과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더 많아졌기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과 우울증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연구주제라고 생각된다. 이 두 개념은 의미상 거의 반대적인 개념이어서 결혼에 만족하면 우울증을 겪지않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결혼생활에 불만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은 아니다. 즉, 결혼생활에 만족해도 다른 원인으로 우울증을 겪을 수 있고, 결혼생활에 불만이 커도 우울증을 겪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남

편과 부인사이에도 결혼만족이나 우울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 관계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결혼만족과 우울증을 별개의 종속변수로 하고 맞벌이가족에서 부부의 여러가지 특성이 개인의 결혼만족과 우울증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비교하고 또 그 영향력의 부부간 차이도 비교해봄으로써 맞벌이가족의 역동적인 부부관계에 관한 많은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는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과 우울증을 같이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부부관계의 제 측면 즉 역할관계, 권력, 부부간 상호작용, 태도 및 직업관련 변수등을 결혼만족이나 우울증과 관련시켜 그 관계를 살펴보거나 여러 가설을 비교검증하는 연구도 거의 없다.

그러므로 맞벌이부부 양방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의 관련변수를 파악하고 인과적 모형을 이용하여 관련가설들을 검증해봄으로써 맞벌이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와 심리적 건강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제공과 아울러 외국에서 발표된 가설의 적용여부를 파악할 목적으로 본 연구가 실시되었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

1. 이론적 배경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의 내생변수에 포함되는 역할 관련변수, 자원인지, 부부권력에 대해 먼저 살펴본 다음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역할 관련변수

남편의 가사참여와 부부의 역할갈등, 부부간 역할분담의 불공평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과거보다 남편들이 가사참여에 더 호의적이고 젊은 연령층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Pleck, 1985; 이형실·육선화, 1985). 그러나 남편의 가사참여가 부인의 요구에 의한 소극적인 것이거나 부인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아

직까지 가사역할을 부부가 공유하는 수준은 아니며, 일의 성격상 불규칙적, 비밀상적인 가사를 남편이 주로 수행한다. 반면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던 반복적, 일상적인 성질의 가사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남편보다는 부인본인이나 자녀, 고용인등의 가사조력자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부간의 역할공유 기회가 더 적다(김미하, 1990; 한국여성개발원, 1986; 이연주, 1984).

남편의 가사참여에 관한 가설로 성역할지향 가설, 상대적 자원 가설, 시간유용설 가설등이 있다(Spitz, 1988; Thompson & Walker, 1991; Thompson, 1991). 실증적인 결과로 남편의 성역할태도(이성희·김태현, 1989; 한국여성개발원, 1986; 김미하, 1990; Bird, Bird & Scruggs, 1984; Pleck, 1985; Kalleberg & Rosenfeld, 1990; Seccombe, 1986), 부부의 소득차(안희순, 1988; Bird et al., 1984; Pleck, 1985; Kalleberg & Rosenfeld, 1990), 근무시간(김미하, 1990; Barnett & Baruch, 1987), 남편의 지지(안희순, 1988; Menaghan & Parcel, 1991)등이 관련변수로 보고되며 대체로 남편이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경우, 부부간의 소득차가 적은 경우, 남편의 근무시간이 부인에 비해 많지않은 경우, 부인의 취업을 지지하는 경우에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결과도 있어 더 많은 검증을 요한다.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은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부인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즉, 부인이 직장인, 아내, 주부, 어머니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할의 비양립과 역할과중, 역할기대의 불일치, 시간제약과 긴장등 일종의 역할과 관련된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을 역할갈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변수로는 부인의 직업지위와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동기, 남편의 지지, 부인의 성역할태도, 직업만족, 근무시간등이 보고된다. 즉, 부인의 낮은 직업지위나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인 취업동기, 남편의 적은 지지, 부인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낮은 직업만족도, 장시간의 근무시간과 융통성이 적은 근무일정 등이 부인의 높은 역할갈등과 관련된다고 한다(Walter & McKenry, 1985; 임정민·정혜정, 1986; 안선영, 1988; 한국여성개발원, 1986; 강성희, 1989;

구해령, 1990).

한편 우리나라 맞벌이가족에서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남편이 느끼는 역할긴장과 갈등에 관하여 직접 조사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취업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순옥, 1973; 이동원, 1976)에서 부인이 취업함으로써 부인자신의 피로와 건강악화문제와 생활불만 등이 쌓이고 남편에 대한 서어비스, 가사일, 자녀돌보기등을 소홀하게 함으로써 남편들이 갈등을 느낄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외국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맞벌이부부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역할갈등은 시간부족과 제약으로 인한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관련변수로 어린 자녀의 유무와 근무시간 압박이 보고된다. 또한 맞벌이남편은 남편의 가사참여를 요구하는 부인의 압력, 부인의 내조부족, 의사결정시 부인의 발언권 강화등의 이유로 갈등을 느낀다(Burke & Weir, 1976; Stanley, Hunt & Hunt, 1986; Voydanoff & Kelly, 1984; Kelly & Voydanoff, 1985). 그리고 부인이 남편에 비해 역할갈등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Voydanoff & Kelly, 1984; Galambos & Silbereisen, 1989).

역할분담의 불공평에 대한 인지정도는 최근에 외국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주로 부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맞벌이부인의 2/3가 전적으로 가사를 담당하나 1/3만이 직장일과 가사일을 합한 전체 일하는 시간에서 남편과 비교해 불공평을 느낀다고 한다(Ferree, 1988). 이와 관련된 변수를 개관한 Thompson(1991)은 맞벌이가족에서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남편의 가사참여에 대한 기대가 클 수록, 남편의 가사참여가 적을수록, 현 결과를 가져온 과정의 부적합성을 많이 인식할 수록 부인은 가사분담의 불공평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한편 이들 역할관련 변수를 자원인지나 부부권력과 관련시킨 연구는 아직 없다.

2) 자원인지도와 부부권력

맞벌이생활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보상으로서 자원을 인지하는 정도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인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부인의 직업지위, 남편의 지위, 성역할태도, 직업만족, 부인의 소득등과 관련된

는 것으로 보고되나 연구결과마다 일관성이 없고(박미령, 1987; 도미향·최외선, 1990), 부부간의 자원인지도의 차이에 관해 알려진 바가 없다.

부인의 취업은 부인의 발언권이나 권력을 증가시켜서 맞벌이부부가 일반부부에 비해 공동의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한다는 보고들이 있다. 부부권력에 관한 가설로 자원이론 가설과 성역할지향 가설이 있다(Pleck, 1985). 실증적인 연구에서 부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평등한 권력관계와 공동의 의사결정을 보인다. 특히 경제적인 의사결정시 그 경향이 현저하며(김성희·문숙재, 1989; 강수경, 1985; Spitze, 1988; Bird et al., 1984; Marnet & Finlay, 1984; Warner, Lee & Lee, 1986), 저소득층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이정우·김규원, 1986; 전춘애, 1989; 유가효 외, 1992). 또한 부인의 소득이 권력관계의 자원으로 기능함에 있어 성역할규범의 영향을 받으며, 남편과 부인이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때 부부권력을 더 평등하게 지각한다고 보고된다(조혜정, 1981; 이진숙, 1989; Sexton & Perlman, 1989). 유가효등(1992)은 생산직 취업주부의 과반수가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권한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역할로 인지한다고 하여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 권력 연구 방법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3) 결혼만족과 우울증

우리나라에서 취업한 부인을 대상으로 역할갈등과 심리적 부적응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이연숙, 1991)가 보고되었으나 부부 양쪽을 대상으로 결혼만족과 우울증을 연구한 연구는 아직 없다. 우울증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은 부적 관계를 가지나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은 아니며(Voydanoff & Donnelly, 1989), 두 변수의 인과관계나 선재변수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만한 선행연구도 없다는 점, 그리고 본 연구가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가설검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을 별개의 종속변수로 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부인의 취업이 부부의 결혼생활과 심리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크게 세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부인취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견해이고, 둘째는 부인취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견해이며 셋째는 부인취업의 영향을 단일한 방향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다. 최근 1980년대의 관련연구들을 검토한 Spitze(1988), Thompson과 Walker(1991) 등은 첫째견해에 속하는 것으로 지위경쟁·갈등 가설을, 둘째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위확장·자원가설을, 셋째견해로 공평가설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태도 및 직업관련 가설도 셋째견해에 해당된다(최규련, 1990).

지위경쟁·갈등가설(status-competition/ conflict model)은 취업주부의 다중역할수행 결과 가족역할의 재조직과정에서 역할과중, 역할기대와의 불일치, 시간제약과 에너지고갈등이 초래되며 그에 따라 역할긴장 및 갈등의 증가와 부부간의 상호작용 감소를 가져오고, 직업과 가정일에서 부부간의 경쟁이 부부관계의 균형을 깨는 결과를 가져오므로써 부부관계의 질과 안정성, 정신건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실증적 결과로 부인의 취업과 다중역할수행으로 인해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비취업주부에 비해 결혼만족이 감소되고 그 결과 이혼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보고와(Kingston & Nock, 1987), 또한 맞벌이부인이나 남편의 역할긴장 및 갈등은 결혼만족도의 감소(임정빈·정혜정, 1986; 서동인, 1985; Stanley et al., 1986; Broman, 1988; Galambos & Silbereisen, 1989)와, 생활만족도 감소(이연숙 외, 1991), 우울증 증가(Keith & Schafer, 1985; Ulbrich, 1988)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다. 부인의 직업지위가 남편의 직업지위와 같거나 더 높을때, 일반부부에 비해 부부간에 경쟁이 작용하여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고 결혼안정성이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다(Hiller & Philliber, 1982).

지위확장·자원가설(status-enhancement/resource model)에서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획득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보상이 부부관계의 자원이 되어 일반부부의 보완적인 결혼

(complementary marriage)과 달리 평등적인 결혼(parallel marriage)이 가능하게 되며 그 결과 부인의 취업이 결혼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이 가설은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이나 긴장도 일반부부와 마찬가지로 적용할 문제이고 불가피한 것이며 대처방법에 따라 긍정적 결과도 가능하다고 본다(Spitze, 1988; Seccombe, 1986). 부인의 취업에 따른 보상으로써 자원개념은 자원이론(Safilios-Rothschild, 1970)에 기반을 둔것으로 부인이 취업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남편의 직업생활 이해와 배우자로부터의 서어비스, 부부간 대화의 활성화와 동료감의 지속이 가능해지고 직장동료와의 유대감, 사회참여 욕구의 충족과 소속감, 자존감, 유능감, 성취감, 풍부한 생활경험, 가정생활 스트레스와 불만의 해소등의 보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실증적 연구로는 맞벌이부부가 일반부부에 비해 결혼만족이 높으며 특히 맞벌이부인이 비취업부인에 비해 우울증을 적게 경험한다는 보고와 (Saenz, Goudy & Lorenz, 1989; Thomas, Albrecht & White, 1984), 부인이 취업에 따른 주관적인 자원들을 많이 인지할수록 부부권력의 평등을 지각하고 결혼에 만족한다는 보고가 있다(김경아·이정우, 1990; 도미향·최외선, 1990; Spitze, 1988; Tiedje et al., 1990). 한편 박미령(1987)은 맞벌이부인이 취업에 따른 주관적 자원을 적게 인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부인취업의 영향을 단일한 것으로 보지않고 복합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에는 공평가설과 태도 및 직업관련 가설이 있다. 공평이론(equity theory)가설은 교환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최근에 제시되었다. 이 가설은 맞벌이부부가 결혼생활을 위해 각자 들이는 비용 특히 직업적인 역할과 가사역할을 위해 소모하는 시간이나 노력등에서 불공평(inequity, unfairness)을 인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고 우울증을 많이 경험하며, 공평을 인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우울증을 적게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연구결과는 부인에게만 이 가설이 지지되었고 맞벌이남편은 부인에 비해 역할분담의 불공평을 덜 인지하며 불공평 인지가 남편자신의 결혼만족이나 우울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된다(White, 1983; Yogeve & Brett, 1985; Saenz et al., 1989). Pleck(1985)는 맞벌이부부의 우울증은 가사분담의 정도나 가사로 인한 피곤·소모효과(exhaustion effect)보다는 가사분담의 공평/불공평에 대한 개인의 지각 즉 불공평효과(inequity effect)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공평가설은 아직까지 맞벌이부부중 부인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고 실증적 결과가 많지 않아서 더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한 가설이다.

태도 및 직업관련가설은 부부의 성역할태도, 남편의 지지와 협조, 부인의 직업지위, 취업동기, 직업만족도 등의 변수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이 정적 또는 부적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면 부인이 근대적 성역할태도일때 결혼만족도가 높고(박미령, 1987; 임정빈·정혜정, 1986; 임정빈·이종숙, 1989; 강은령, 1989) 우울증은 적게 나타나며(Ulbrich, 1988; Pleck, 1985; Mirowsky, 1985), 남편도 근대적 태도일때 역시 결혼만족도가 높고(서동인, 1985; 강은령, 1989) 우울증이 적다고 보고된다(Spitze, 1988; Pleck, 1985). 또한 남편의 지지와 협조가 있을때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하고(신성자, 1981; 임정빈·정혜정, 1986; 박미령, 1987; 강은령, 1989; 도미향·최외선, 1990; Thomas et al., 1984; Pleck, 1985) 우울증은 감소되며(이연숙외, 1991; Ulbrich, 1988; Pleck, 1985; Mirowsky, 1985), 남편의 경우에도 부인의 취업을 지지할때 우울증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Spitze, 1988; Pleck, 1985).

부인의 직업지위가 중위직 이상일 때 부인은 결혼만족도가 높으며(신성자, 1981; 박미령, 1987; 이동원, 1976), 직업지위가 낮을수록 부인의 우울증이 증가한다고 한다(Ulbrich, 1988; Pleck, 1985; Mirowsky, 1985). 비경제적인 동기로 취업하는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고(신성자, 1981; 박미령, 1987; 임정빈·정혜정, 1986; 임정빈·이종숙, 1989; 도미향·최외선, 1990), 그 남편의 결혼만족도도 더 높게 나타났다(서동인, 1985). 부부 각자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부인(임정빈·정혜정, 1986; 김경숙, 1987; 강은령, 1989; 신성자, 1981; Pleck, 1985) 또는 부부양방의(Benin & Nienstedt, 1985; Thomas et

al., 1984)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또한 부부각자의 직업만족은 부부 양방의 우울증 및 심리적 문제와 부적 관계를 보인다고 한다(Coverman & Sheley, 1986).

이들 가설외에 남편의 가사참여정도와 부부간의 상호작용정도가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과 관련된다는 결과가 있다. 즉, 남편의 가사참여정도가 부인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보이며(Berry & Williams, 1987; Benin & Agostinelli, 1988), 우울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pitze, 1988; Pleck, 1985). 또한 부부간의 대화와 성생활, 부부공동의 여가가 일반부부(최규련, 1987, 1990; 이동원, 1988; Snyder, 1979)와 마찬가지로 맞벌이부부(도미향·최외선, 1990; 유가효외, 1992; Thomas et al., 1984; Snyder, 1979)의 결혼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즉 부부간의 대화가 많고 부부 둘다 얘기를 잘하는 경우,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부부공동의 여가가 많은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맞벌이가족에서 부부간 상호작용정도와 우울증과의 관련성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고, 또한 부부권력을 결혼만족도나 우울증과 관련시킨 연구결과도 아직 없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가설을 종합해 볼때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은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관련되는 변수와 가설들을 인과적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을 파악하고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가설의 적용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가설에는 역할갈등 변수를 사용하고, 자원가설에는 자원인지변수를 사용하고, 공평가설에는 불공평인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태도 및 직업관련 가설의 검증은 성역할태도, 남편의 지지, 부인의 소득, 부인의 직업지위, 직업만족, 취업동기를 사용하였다. 이외에 남편의 가사참여정도, 부부간의 대화, 여가, 성생활, 부부권력 등을 관련변수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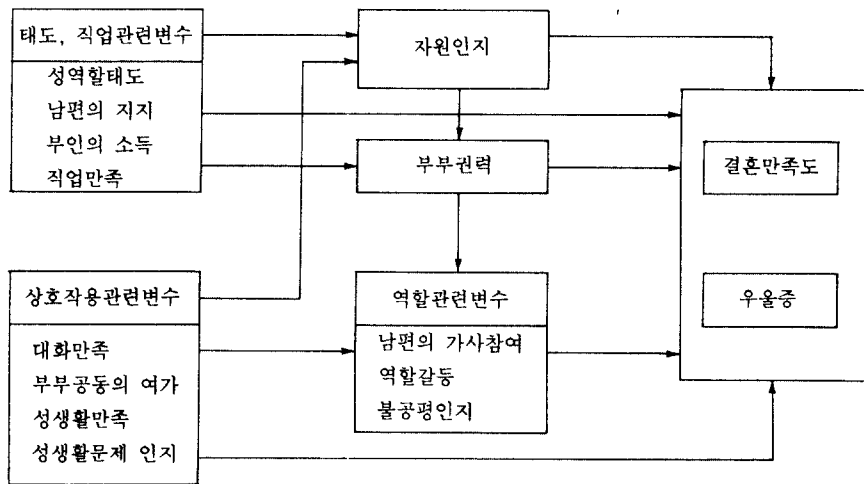
2. 연구문제

앞에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과 관계있는 변수로 역할관련변수(남편의 가사참여, 역할갈등, 불공평인지), 자원인지와 부부권력, 부부간의 상호작용 관련변수(대화만족, 공동의 여가, 성생활만족, 성문제인지, 갈등해결방법), 태도 및 직업 관련변수(성역할태도, 남편의 지지, 부인의 소득, 직업만족, 취업동기, 부인의 직업지위)를 선정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과 인과모형 분석에서는 척도의 성격상 상호작용 관련변수중 갈등해결방법이 제외되고, 태도 및 직업 관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며 학동기자녀(대부분 4학년 이상)를 둔 맞벌이부부이다. 부인의 직종을 기준으로 노동생산직, 기능직, 고용판매직을 하위직에 포함하고, 자영사업, 자유업, 사무직, 전문기술직을 중위직에 포함하여, 각 직종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한 의도적 표집방법을 택하였다. 전문직이 제외된 것은 전문직은 다른 직종과 달리 전문성과 업적경쟁이 더 요구되는 특성을 갖는 점에서 다른



(그림 1)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의 관련변수 인과모형

련변수중에서 취업동기, 부인의 직업지위가 제외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부부의 역할관계 즉 남편의 가사참여, 역할갈등, 역할분담의 불공평인지의 관련변수는 무엇인가?

둘째, 맞벌이부부의 자원인지도와 부부권력의 관련변수는 무엇인가?

세째,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은 어떠한 관련되는 변수는 무엇인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위직과 하위직의 분류는 홍두승(1983)의 직업분류에 기초하였다. 대상선정시 맞벌이가족의 부부관계와 자녀문제를 함께 조사하는 공동연구의 성격상, 그리고 부부체계를 더 밀도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4학년이상 6학년인 자녀가 있고 부부가 동거하는 가족으로 제한하였고, 주말부부나 남편이 무직인 경우, 부부가 함께 자영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

50쌍의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친후 본 조사를 위

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남편이부인과 남편을 동시에 조사하기 위하여 부인의 직장에 가서 부인용 조사도구와 남편용 조사도구를 배부하고 부인을 통해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부가 상의하거나 보여주지 않도록 미리 주지시키고 남편용 질문지는 남편이 직접 기입하여 봉투에 넣어 밀봉하도록 하였다. 수집결과 거의 대부분이 지시대로 밀봉되어 있었고 응답에 있어 부부가 상의하거나 보여준 것으로 추정되는 질문지는 없었다. 총 300쌍의 부부를 조사하여 회수가 안된 것과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265쌍의 부부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2. 조사도구

1) 역할갈등

임정빈·정혜정(1986), 구혜령(1990), Kelly & Voydanoff (1985)의 척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부인용은 직장인, 어머니, 아내, 주부역할 등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역할과중과 긴장, 역할기대와의 불일치, 역할비양립, 시간제약을 느끼는 정도를 묻는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남편용은 맞벌이생활함으로써 남편이 느끼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측정하였다. 예를 들면 남편의 가사일에 대한 부인의 지나친 요구, 집안일에 신경을 쓰느라 바깥일에 열중하지 못함, 아내의 어머니역할, 아내역할, 주부역할 수행등에 대한 기대불일치, 가족단란 시간의 부족, 가정분위기의 긴장, 부부동반활동의 제약등 8문항을 질문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값이 부인용 척도는 .73, 남편용 척도는 .79이다.

2) 자원인지

Safilios-Rothschild(1970), 이동원(1976), 박미령(1987)의 척도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부인용은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남편과의 대화소재가 풍부해짐, 가정생활의 스트레스 해소, 독립적인 결정가능, 부부관계에 도움된다고 느끼는 정도등 4문항을 질문하였고, 남편용은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남편의 직업생활에 대한 부인의 이해증가, 부부간 대화소재의 풍

부, 집안분위기의 활성화, 부부각자의 독립적인 결정가능, 부부관계에 도움된다고 느끼는 정도 등 5문항을 질문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값이 부인용 척도는 .72, 남편용 척도는 .74이다.

3) 결혼만족도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7점 리커트형 척도 1문항과 결혼후회 정도, 별거나 이혼 고려정도, 다시 배우자와의 결혼을 고려하는 정도를 묻는 5점 리커트형 척도 3문항을 합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값이 부인용 척도는 .84, 남편용 척도는 .81이다.

4) 우울증

심리적으로 탈진, 의기소침, 외로움, 의욕상실, 불안, 초조감등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며 신체화된 증상은 제외시켰다. Ulbrich(1988)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참고로 6문항을 작성하였고,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 상태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값이 부인용 척도는 .83, 남편용 척도는 .84이다.

5) 성역할태도

가족부양은 남편이 책임지고 가정살림은 아내가 책임져야한다, 가정내 중요한 문제는 남편이 결정해야한다, 여자가 잘되는 길은 자신의 성공보다 남편과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등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1점은 전통적인 태도, 5점은 근대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값이 부인용 척도는 .64, 남편용 척도는 .58이다.

6) 부부권력

경제적인 면에서 부부중 누구의 발언권이 더 크다고 지각하는지를 단일문항으로 질문하여 부부 각자가 지각하는 상대적 권력을 측정하였다. 1점은 남편의 발언권이 큰 경우, 3점은 부부동등형, 5점은 부인의 발언권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7) 불공평인지

직장일과 집안일을 하는 시간을 합한 전체 일하는 시간을 배우자와 비교해서 불공평을 어느정도 느끼는지를 단일문항으로 질문하였고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부인쪽이 더 많이 일하여 매우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것이다.

8) 남편의 가사참여정도, 남편의 지지, 직업만족, 대화만족, 부부공동의 여가, 성생활만족, 부인취업에 따른 성생활문제 인지는 각각 5점 리커트척도의 단일문항으로 질문하였고, 5점에 가까울수록 그 특성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소득수준은 소득액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3. 분석방법

일반적 경향을 알기위해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가 사용되었고 차이 검증을 위해 χ^2 test와 t-test, F-test가 사용되었고, 변인들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 상관계수와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및 경로분석(path analysis)이 사용되었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조사대상의 특성과 내생변수인 역할관계, 자원인지, 부부권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먼저 살펴보고 종속변수인 결혼만족과 우울증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기로 하겠다.

1. 조사대상부부의 일반적 특성¹⁾과 직업관련 특성

부인의 직업은 노동생산직 16.6%, 기능직 10.9%, 고용판매직 11.3%, 자영사업 12.5%, 사무직 18.9%, 전문기술직 29.8%의 분포를 보였다. 부인이 응답한 취업동기는 생활비 마련, 주택마련등 긴급필수형의

경제적 동기가 45.5%, 노후 준비와 자녀교육등 장래 대비형 경제적 동기는 23.1%, 자기 발전과 사회참여 등 비경제적 동기는 31.4% 를 차지했고, 남편이 응답한 부인의 취업동기는 긴급필수형 경제적 동기가 43.7%, 장래 대비형 경제적 동기는 19.2%, 비경제적인 동기는 37.1% 로 나타나, 남편이 부인보다 비경제적 동기의 응답율이 높았다.

부인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는 부인응답에서 반대하는 편 6.8%, 중간 21.9%, 협조하는 편이 71.3% 이고, 남편의 응답에서는 반대하는 편 8.0%, 중간이 22.0%, 협조하는 편이 70% 로서 남편의 70%이상이 부인의 직장생활에 찬성·협조하는 편이며 응답에 있어 부부간의 차이는 없었다. 남편이 기대하는 부인의 직장생활 기간을 보면 가능한 빨리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23.4%, 적당한 시기에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45.2% 로 부인의 직장생활을 평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68.6%이었다. 한편 가능한 계속하기를 기대하는 비율은 28.4%로 낮았다. 부인이 남편보다 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졌으며 직업만족도도 높았다(p<.001).

2. 역할관계²⁾

1) 남편의 가사참여정도

남편의 가사참여정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수들을(표2-2 참조) 중회귀분석한 결과 부인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beta=.19$), 대화만족($\beta=.17$), 성역할태도($\beta=.14$)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들 3개 변수의 설명력은 10.5%이었다(표3 참조). 따라서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가 클수록, 부부간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지각할수록,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남편의 가사참여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 남편의 지지가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선행연구(안희순, 1988; Menaghan & Parcel, 1991)와 일치하는 것이다.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선행연구(이성희·김태현,

1) 본인의 공동연구보고서(김양희 외,1992) 참조.

2) 역할관계,자원인지,권력,부부간 상호작용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검증 결과는 본인의 논문발표요지(1991) 참조.

1989; 한국여성개발원, 1986; 김미하, 1990; Bird et al., 1984; Pleck, 1985; Kalleberg & Rosenfeld, 1990; Seccombe, 1986)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남편의 가사참여에 대한 가설중 성역할지향가설이 지지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화만족이 남편의 가사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새로 발견된 사실이다. 남편의 가사참여가 적은 이유에 대해 별도로 질문한 결과 부부가 공통적으로 남편의 직장일과다와 시간부족을 첫째이유로 제시했고 그다음 남자의 체통유지와 고정관념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성역할지향 가설외에 시간유용설 가설도 지지되는 것으로 유추되나 추후에 직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 역할갈등

부인이 남편보다 역할갈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p < .001$) 이는 선행연구(Galambos & Silbereisen, 1989; Voydanoff & Kelly, 1984)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관련변수를 중회귀분석한 결과 부인의 역할갈등에는 대화만족($\beta = -.30$), 공동여가($\beta = -.17$), 직업만족($\beta = -.18$), 부부권력($\beta = .17$), 부인의 성역할태도($\beta = -.13$)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5개 변수의 설명력은 26.4%이었다(표3 참조). 따라서 부부간의 대화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부부공동의 여가가 적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부인의 권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부인은 맞벌이생활에 따른 역할갈등을 많이 겪는다. 이 결과중 직업만족, 성역할태도가 부인의 역할갈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대화만족과 공동의 여가가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며 일반화를 위해 추후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부인의 취업동기, 성생활만족, 성문제도 차이검증과 상관관계분석에서 역할갈등과 관련되는 변수이었으나 중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남편의 역할갈등에는 부인취업에 따른 성문제인지($\beta = .39$), 공동여가($\beta = -.22$)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2개 변수의 설명력은 23.0%이었다(표3 참조). 따라서 남편이 부인취업에 따른 성생활문제를 많이

지각할수록, 부부공동의 여가가 적을수록 맞벌이생활에 따른 역할갈등을 많이 느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차이검증과 상관관계분석에서 성역할태도, 남편의 지지, 직업만족, 부인의 취업동기, 대화만족, 성생활만족 등이 남편의 역할갈등과 유의하게 관련되는 변수이었으나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어서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부인의 역할갈등과 관련되는 변수와 비교할 때 다음 몇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부부가 공통적으로 대화부족과 공동여가부족, 성문제등 부부간의 상호작용부족으로 인해 맞벌이생활에 따른 역할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들은 성문제 인지와 공동여가 등 부부간 상호작용 요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부인은 대화만족과 공동여가가 영향력이 있기때문에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이 부부간 상호작용정도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부인의 경우 자신의 성역할태도와 직업만족도에 의해서 역할갈등이 좌우된다고 나타나 역할갈등을 줄이기위해 부인자신의 태도변화와 직업만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인이 지각하는 권력이 클때 부인의 역할갈등이 증가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려우며 추후분석이 필요하다.

3) 불공평인지

80% 가량의 부인들이 일하는 시간에 있어 배우자와의 불공평을 느끼고 있어 선행연구(Ferree, 1988)에서 맞벌이부인의 1/3이 불공평을 느낀다는 결과보다 훨씬 많은 수치를 보였다. 남편에 비해 부인의 불공평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Yogev & Brett, 1985; Saenz, Goudy & Lorenz, 1989)와 일치된 것이다. 부인의 불공평인지의 관련변수를 중회귀분석한 결과 대화만족($\beta = -.15$), 공동여가($\beta = -.14$)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 2개 변수의 설명력은 5.5%로 낮았다(표3 참조). 더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변수에 대한 조사가 추후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 볼때 부부간에 대화가 충분하지않다고 지각할수록, 부부공동의 여가가

적을수록 부인은 역할분담의 불공평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차이검증과 상관관계분석에서 남편의 가사참여, 직업만족도, 부인의 소득, 부부권력, 성문제 등도 부인의 불공평인지와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3. 자원인지와 부부권력

1) 자원인지

부인이 남편에 비해 주관적 자원인지도가 더 높았다($p < .001$). 자원인지도의 관련변수들을 중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3 참조).

부인의 경우 부인의 소득($\beta = .25$), 남편의 지지($\beta = .14$), 성생활만족($\beta = .17$), 직업만족($\beta = .17$), 성역할태도($\beta = .1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5개 변수는 자원인지정도 총 변량의 25.6%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부인소득이 많을수록, 남편의 지지가 클수록, 성생활에 만족할수록, 직업에 만족할수록,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부인은 맞벌이생활에 따른 자원을 높게 인지한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의 경우는 부인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beta = .34$), 직업만족($\beta = .14$), 성생활문제($\beta = -.14$)가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고 이 3개 변수의 설명력은 21.3%이었다. 따라서 부인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가 클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부인취업에 따른 성생활문제를 적게 인식할수록 남편은 맞벌이생활에 따른 자원인지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부 공통적으로 남편의 지지와 직업만족, 성생활변수가 맞벌이생활에 따른 자원인지를 좌우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부의 교육수준, 부인의 직업지위, 부인의 취업동기도 차이검증에서 부부공통적으로 자원인지와 관련되는 변수로 밝혀졌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않았다.

2) 부부권력

부부권력에 대한 지각에서 성차를 보여 부인이 남편보다 더 평등형으로 지각하고, 남편의 발언권을 더 적게 지각하였다($p < .001$). 부인이 지각하는 권력에 대한 중회귀분석결과 부인의 소득($\beta = .15$), 자원인

지($\beta = .14$)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 2개 변수의 설명력은 5.8%로 낮았다(표3 참조). 이 결과만으로 볼때 부인이 지각하는 권력은 부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원인지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할 수 있고 부부권력에 대한 자원이론 가설이 지지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성역할태도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서 성역할지향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변수의 설명력이 낮기때문에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4. 결혼만족도와 우울증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의 일반적 경향을 보기위해 각각 5점기준으로 하여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결혼만족도 점수는 부인이 3.44, 남편이 3.80, 우울증 점수는 부인이 2.74, 남편이 2.50으로 부부모두 결혼만족도는 중간수준이상이고 우울증은 중간수준 미만이다.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p < .001$) 부인은 남편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더 낮으며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중 부인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도시 취업주부를 대상으로한 결과(박미령, 1987)와 일치하며, 부인이 남편보다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는 경향은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한 선행연구결과(서동인, 1985)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부인이 남편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고 우울증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나 충분히 예견되는 사실이다. 이로써 맞벌이가족에서 부인의 정신건강과 결혼만족이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상호역동적으로 남편과 자녀 및 전 가족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의 관련변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의 관련변수를 차이검증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이검증 결과(표1 참조) 부인 집단에서 부인의 직업지위, 소득, 취업동기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우울증 모두 유의한 차를 보였다. 즉, 부인의 직업이 중

〈 표 1 〉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대한 차이검증

부 인			남 편		
독립 변수	결혼만족도	우울증	독립 변수	결혼만족도	우울증
종류 집단	평균 t,F값	평균 t,F값	종류 집단	평균 t,F값	평균 t,F값
가사 없음 (131)	14.48	16.67	가사 없음 (131)	16.20	15.01
조력자 있음 (131)	15.85 ^{***}	15.85	조력자 있음 (131)	17.12 [*]	14.93
부인의 직업지위 하위직 (101)	14.34	17.23	부인의 직업 지위 하위직 (101)	16.13	15.41
직업지위 중위직 (161)	15.69 ^{**}	15.77	직업 중위직 (160)	17.07 [*]	14.68
가족 195만원이하 (134)	14.67	16.95	가족 195만원이하 (134)	16.32	15.24
소득 196만원이상 (109)	16.15 ^{***}	15.46	소득 196만원이상 (109)	17.09 ^{-1.88}	14.59
부인의 취업 동기 경제적 (178)	14.45	17.53	부인의 취업 동기 경제적 (160)	16.07	15.55
비경제적 (83)	16.71 ^{***}	16.71	비경제적 (95)	17.77 ^{***}	13.97
권력 남편지배 (85)	14.13	16.82	권력 남편지배 (115)	16.42	15.10
평 등 형 (127)	16.25 ^{***}	15.60	평 등 형 (86)	17.50 [*]	13.94
형태 부인지배 (50)	14.18	17.36	형태 부인지배 (52)	16.04	16.29
갈등 대화 (66)	17.39	15.37	갈등 대화 (72)	18.10	14.04
해결 참음 (70)	14.43	16.82	해결 참음 (92)	16.54	15.40
방법 냉전 (75)	14.68 ^{***}	16.38	방법 냉전 (50)	16.06 ^{***}	14.65
기분전환 (20)	14.50	15.62	기분전환 (14)	15.36	13.15
싸움 (22)	12.73	18.27	싸움 (22)	14.77	16.14

* p<.05 ** p<.01 *** p<.001

(표 2-1) 부인의 결혼만족도 · 우울증과 관련변수간의 상관관계

관 련 변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부인의 소득															
2. 남편의 가사참여	.03														
3. 남편의 지지	*** .18	*** .36													
4. 불공평 인지	* .14	** -.16	-.08												
5. 역할갈등	.01	-.02	-.09	*** .22											
6. 자원인지	*** .33	.07	*** .29	.07	-.05										
7. 부인권력	** .19	.03	* .12	* .11	*** .20	** .18									
8. 대화만족	-.03	.08	.02	*** -.20	*** -.37	.06	-.14								
9. 부부공동의 여가	.10	*** .23	** .18	*** -.21	*** -.35	** .18	-.03	*** .30							
10. 부인취업에 따른 성문제	.01	-.09	-.09	*** .24	*** .27	-.10	.01	*** -.22	*** -.22						
11. 성생활만족	.07	*** .20	** .17	-.11	* -.15	*** .24	.09	*** .28	*** .27	*** .26					
12. 성생활태도	* .13	-.00	*** .22	.02	** -.16	*** .24	-.11	* -.08	*** .22	* -.14	.05				
13. 직업만족	*** .29	* .14	*** .24	* -.15	*** -.27	*** .25	-.01	.11	.11	-.11	.10	.03			
14. 결혼만족도	.06	*** .24	*** .22	*** -.37	*** -.29	*** .20	.05	*** .33	*** .35	*** -.30	*** .38	-.02	*** .21		
15. 우울증	** -.16	-.01	** -.16	*** .24	*** .46	* -.14	.01	*** -.24	*** -.30	*** .38	*** -.20	*** -.23	*** -.32	*** -.32	
평 균	79.74	2.15	3.87	3.37	24.73	14.50	2.77	2.76	2.33	2.60	3.68	7.94	6.58	15.13	16.46
표 준 편 차	53.30	.74	.88	1.03	4.94	3.31	1.13	1.06	.88	1.16	1.00	2.82	1.42	3.61	5.15

* P<.05 ** P<.01 *** P<.001

위직인 경우, 소득이 많을 때, 비경제적 이유로 부인이 취업했을 때 부인은 결혼생활에 대해 더 만족하고 우울증을 더 적게 경험하였다. 이외에 가사조력자 유무, 권력관계, 갈등해결방법은 결혼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를 보여서 가사조력자가 있을 때, 평등형 권력일 때,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시 부인은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였다. 이 중 결혼만족도의 관련변수

들은 선행연구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다.

남편 집단에서는 부인의 취업동기, 권력관계, 갈등해결방법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서 동시에 유의한 차를 보였고 각 변수에 따른 차이는 부인집단에서 나타난 경향과 같았다. 그밖에 가사조력자 유무, 부인의 직업지위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를 보였고 우울증과는 관련되지 않았다.

〈표 2-2〉 남편의 결혼만족도, 우울증과 관련변수간의 상관관계

관 련 변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남편의 가사참여												
2. 남편의 지지	*** .24											
3. 역할갈등	.09	*** -.24										
4. 자원인지	.09	*** .39	*** -.21									
5. 대화만족	*** .24	*** .21	*** -.26	* .15								
6. 부부공동의 여가	** .16	*** .24	*** -.26	*** .22	*** .29							
7. 부인취업에 따른 성문제	-.07	*** -.22	*** .37	** -.19	*** -.28	** -.17						
8. 성생활만족	* .11	*** .28	*** -.30	** .19	** .19	*** .29	*** -.41					
9. 성역할태도	*** .20	* .12	* -.14	-.01	* .14	** .25	-.05	.04				
10. 직업만족	.06	*** .21	*** -.16	*** .25	** .17	*** .25	** -.17	*** .24	.02			
11. 결혼 만족도	** .17	*** .23	*** -.37	*** .27	*** .26	*** .24	*** -.30	*** .47	.02	*** .17		
12. 우울증	*** -.22	* -.14	*** .36	** -.16	*** -.31	** -.20	*** .33	*** -.30	-.07	*** -.28	*** -.40	
평 균	2.08	3.75	23.28	16.50	2.93	2.45	2.57	3.64	6.50	5.99	16.74	14.98
표 준 편 차	.60	.84	5.56	3.44	1.03	.97	1.15	1.02	2.44	1.68	3.19	4.25

* p<.05 ** p<.01 *** p<.001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의 관련변수를 각각 조사한 결과 (표 2-1, 2-2참조) 결혼만족도와 비교적 상관이 높은 변수는 부부 양쪽 다 성생활 만족도(부인 $r=.38$, 남편 $r=.47$)이고, 우울증과 비교적 상관이 높은 변수는 부부 공통적으로 역할갈등(부인 $r=.46$, 남편 $r=.36$)과 부인 취업으로 인한 성문제(부인 $r=.38$, 남편 $r=.33$)이었다.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의 관계는 부인 ($r=-.32$), 남편($r=-.40$) 모두 부적 상관을 보여서 선행연구결과(Voydanoff & Donnelly, 1989)와 일치하였고, 남편이 부인에 비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다. 부부간의 결혼만족도 상관과 우울증 상관을 각각 조사한 결과 결혼만족도 상관($r=.61$)이 우울증 상관($r=.32$)보다 더 높았다. 이를 통해 남편과 부인의 정서적 구조가 상호긴밀하게 역동적으로 관련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결혼만족도는 부부공동의 결혼생활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측정하는 우울증보다도 부부간의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부부의 결혼만족도·우울증 및 내생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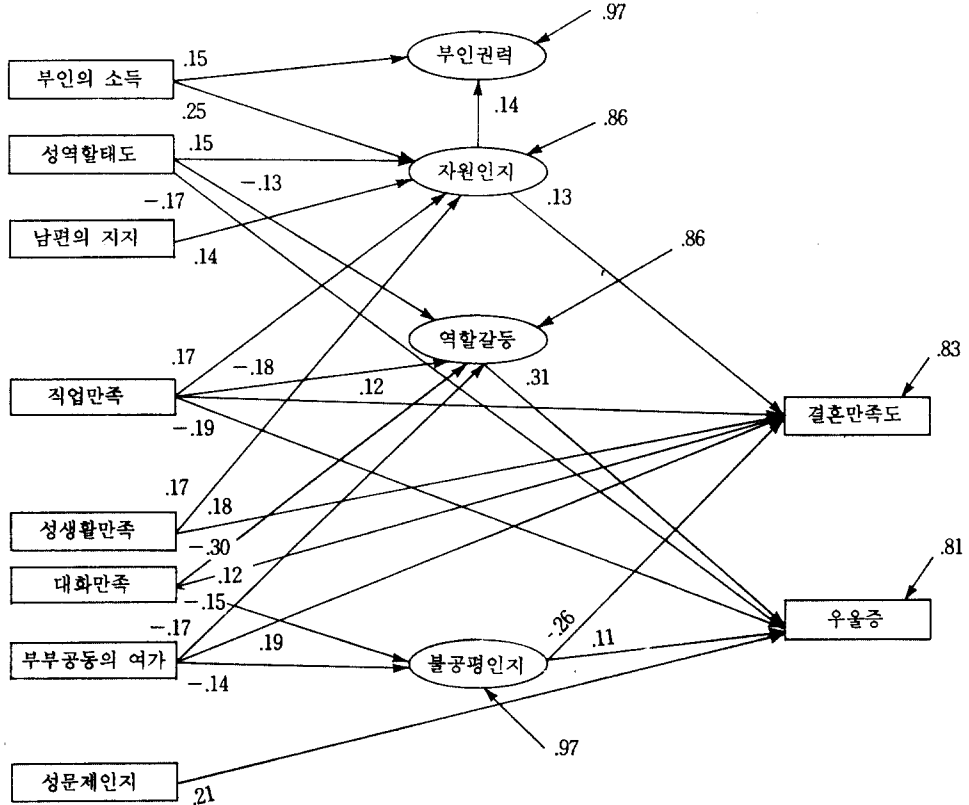
부		남				편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β)	B	R ²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β)	B	R ²
결혼만족도	불공평인지	-.2572	-.9081 ***	.3074	결혼만족도	성생활만족	.3457	1.1068 ***	.3314
	부부공동의 여가	.1873	.6990 ***			역할갈등	-.2666	-.1502 ***	
	성생활만족	.1803	.6660 **			자원인지	.1382	.1286 *	
	자원인지	.1298	.1385 **			가사참여	.1327	.7284 *	
	대화만족	.1183	.3985 *						
직업만족	.1165	.2888 *							
우울증	역할갈등	.3075	.3219 ***	.3476	우울증	역할갈등	.3057	.2248 ***	.2833
	성생활문제	.2134	.9575 ***			가사참여	-.2200	-1.5910 ***	
	직업만족	-.1854	-.6650 ***			직업만족	-.1765	-.4424 **	
	성역할태도	-.1747	-.3119 ***			성생활문제	.1849	.6810 **	
	불공평인지	.1087	.5516 *						
역할갈등	대화만족	-.2983	-1.3847 ***	.2637	역할갈등	성생활문제	.3920	1.9383 ***	.2298
	부부공동의 여가	-.1725	-.8819 ***			부부공동의 여가	-.2156	-1.4096 ***	
	직업만족	-.1805	-.6184 **						
	부인권력	.1667	.7368 **						
	성역할태도	-.1291	-.2196 *						
자원인지	부인소속	.2494	9.287012E-03 ***	.2557	자원인지	남편의 지지	.3423	1.4268 ***	.2132
	남편의 지지	.1428	.5649 **			직업만족	.1416	.2924 **	
	성생활만족	.1736	.6037 **			성생활문제	-.1403	-.4304 *	
	직업만족	.1704	.4224 **						
	성역할태도	.1482	.1736 **						
불공평인지	대화만족	-.1539	-.1478 *	.0549	남편의 지지	남편의 지지	.1876	.1311 **	.1051
	부부공동의 여가	-.1419	-.1501 *		대화만족	대화만족	.1680	.0947 **	
부인권력	부인소속	.1549	3.207016E-03 *	.0578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	.1364	.0313 *	
	자원인지	.1418	.0462 *						

* p<.05 ** p<.01 *** p<.001

2)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대한 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관련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 여

혼만족도 총 변량의 30.7%를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부인이 부부간 역할분담의 불공평을 적게 인지할수록, 부부공동의 여가가 많을수록, 성생활에 만족할수록, 맞벌이생활에 따른 자원을 많이 인지할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부부간 대화에 만족할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 부인의 결혼만족도·우울증의 경로모형

부와 회귀분석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보고 잔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분석가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인집단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대한 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 결과는 <표 3>〈그림 2-1〉과 같다.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불공평인지($\beta = -.26$), 부부공동의 여가($\beta = .19$), 성생활만족($\beta = .18$), 자원인지($\beta = .13$), 직업만족($\beta = .12$), 대화만족($\beta = .12$)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으며 이 6개 변수는 부인의 결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경로분석결과(표4, 그림 2-1참조) 각 변수의 직접적·간접적인 효과와 총인과효과를 볼때 불공평인지가 부인의 결혼만족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며 그 영향력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부공동의 여가가 직접효과와 불공평인지를 경유한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 .22를 미쳤다. 그리고 성생활만족이 직접효과와 자원인지를 경유한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 .20을 미쳤다. 다음으로 대화만족이 직접효과와 불공평인지를 경유한

(표 4) 부부의 결혼만족도·우울증의 관련변수 인과효과

관련변수	부			인			남			편		
	결혼만족도			우울증			결혼만족도			우울증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인소득	-	.033	.033	-	-	-	-	.018	.018	-	-	-
성역할태도	-	.020	.020	-	-	-	-	.072	.072	-	-	-
남편의 지지	-	.018	.018	-	-	-	-	.133	.133	-	-	-
남편의 가사참여	-	-	-	-	-	-	-	.020	.020	.220	-	.220
자원만족	.117	.022	.139	-	-	-	.138	.138	.138	-	-	.138
자원인지	.130	-	.130	-	-	-	-	-	-	-	-	-
부인권력	-	-	-	-	.053	.053	-	.022	.022	.022	-	.022
대화만족	.118	.039	.157	-	-	-	-	.059	.059	.059	-	.059
부부공동의 여가	.187	.036	.223	-	-	-	-	.346	.346	.346	-	.346
성생활만족	.180	.022	.202	-	-	-	-	.213	.213	.213	-	.213
성생활문제	-	-	-	.213	-	-	-	.109	.109	.109	-	.109
불공평인지	-	-	-	.109	-	-	-	.308	.308	.308	-	.308
역할갈등	-	-	-	.308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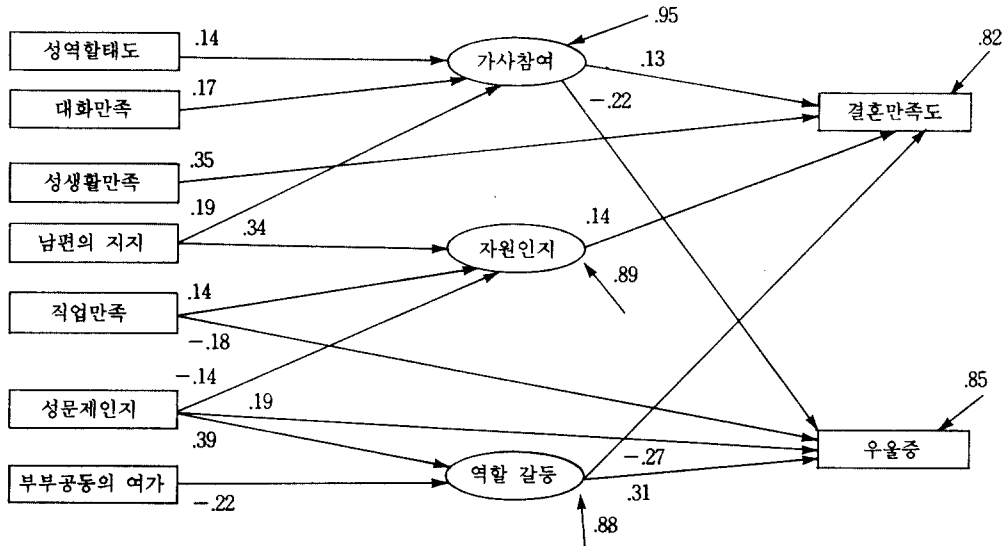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 .16을 미쳤고 직업만족이 직접효과와 자원인지를 경유한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 .14를 미쳤다. 자원인지는 직접효과만을 미쳤다. 이외에도 부인소득(.03)과 성역할태도(.02), 남편의 지지(.02)는 자원인지를 경유한 간접효과만을 미쳤다. 한편 역할갈등, 부인의 권력, 성문제는 결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역할갈등은 단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에서는 다른 변수에 의해 그 직접적인 영향력이 상쇄된 것으로 해석된다.

부인의 우울증은 역할갈등($\beta=.31$), 부인취업에 따른 성생활문제($\beta=.21$), 직업만족($\beta=-.19$), 성역할태도($\beta=-.17$), 불공평인지($\beta=.11$)가 유의하게 영향력을 미치며 이들 5개 변수의 우울증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34.8% 이었다. 따라서 부인은 역할갈등을 많이 경험할 수록, 자신의 취업으로 인해 성생활문제가 있다고 느낄수록,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부부간 역할분담의 불공평을 많이 느낄수록 우울증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인의 우울증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볼때(표4, 그림 2-1참조) 역할갈등이 가장 영향력이 크고 직접효과만을 미쳤다. 다음은 직업만족, 성역할태도가 직접효과와 역할갈등을 통한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24, -.18)를 각각 미쳤고 성문제의 불공평인지는 직접효과만을 미쳤다. 또한 대화만족(-.12)과 공동여가(-.05)는 불공평인지와 역할갈등을 경유한 간접효과만을, 부인의 권력(.05)은 역할갈등을 통한 간접효과만을 미쳤다. 한편 부인소득, 남편의 지지, 남편의 가사참여, 자원인지, 성생활만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대한 회귀분석과 경로분석결과는 <표 3>(그림 2-2)와 같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성생활만족($\beta=.35$), 역할갈등($\beta=-.27$), 자원인지($\beta=.14$), 남편의 가사참여($\beta=.13$)에 의해 영향받으며, 이들 4개 변수의 결혼만족도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33.1%이었다. 따라서 남편이 성생활에 만족할수록, 맞벌이생활로 인한



(그림 2-2) 남편의 결혼만족도·우울증의 경로모형

역할갈등을 적게 느낄수록, 맞벌이생활에 따른 자원을 크게 인지할수록, 가사참여를 많이 할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각 변수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비교하면 (표4, 그림 2-2참조) 성생활만족이 가장 큰 영향을 직접효과만으로 미치고, 다음 역할갈등, 자원인지, 가사참여도의 순으로 직접효과를 미쳤다. 성생활만족은 역할갈등 또는 자원인지를 경유한 간접효과만(-.13)을 미쳤다. 또한 부인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는 가사참여나 자원인지를 경유한 간접효과만(.07)을, 부부공동의 여가는 역할갈등을 경유한 간접효과만(.06)을, 직업만족은 자원인지를 경유한 간접효과만(.02)을, 대화만족(.02)과 성역할태도(.02)는 가사참여를 경유한 간접효과만을 미쳤다.

남편의 우울증은 역할갈등($\beta=.31$), 가사참여 정도($\beta=-.22$), 직업만족도($\beta=-.18$), 부인취업에 따른 성생활문제($\beta=.19$)가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이고 남편의 우울증 총변량에 대한 이들 4개 변수의 설명력은 28.3% 이었다. 따라서 남편이 맞벌이생활로 인한 역할갈등을 많이 느낄수록, 가사참여 정도가 낮을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록,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성생활문제가 있다고 느낄수록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의 우울증에 대한 여러 변수의 영향력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보면(표4, 그림 2-2참조) 역할갈등이 가장 큰 영향을 직접효과만으로 미치며, 그다음으로 성문제가 직접효과와 역할갈등을 경유한 간접효과(.12)를 합한 총효과(.31)를 미쳤다. 다음 가사참여와 직업만족은 직접효과만을 미쳤다. 부부공동의 여가는 역할갈등을 경유한 간접효과(-.07)만을 미쳤고, 부인취업에 대한 지지(-.04), 대화만족(-.04), 성역할태도(-.03)는 가사참여를 경유한 간접효과만을 미쳤다.

이상의 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발견과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맞벌이 가족에서 부부 공통적으로 역할 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인의 경우 역할분담의 불공평 인지정도가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동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맞벌이생활에 따른 역할갈등도 부인의 우울증에 크고 직접적인 효과를 미쳤다. 역시 남편의 경우에도 맞벌이생활에 따른 역할갈등과 자신의 가사참여정도가 결혼만족도와 우울

중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인의 취업에 따른 부부역할의 재구조화와 관련된 특성들(예로 역할갈등, 남편의 가사참여, 불공평인지)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을 크게 좌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역할갈등변수로 측정된 갈등가설이 부부 공통적으로 우울증에서 지지되었고 남편의 결혼만족에서도 지지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역할 관련변수의 영향력에서 성차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즉,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남편자신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비해 부인의 경우는 남편의 가사참여의 많고 적음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역할분담의 불공평정도가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공평가설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서만 지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Pleck, 1985)에서 맞벌이부인의 우울증은 가사로 인한 피곤·소모효과보다는 가사분담의 불공평에 대한 인지효과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는 주장과, 부인의 결혼만족과 우울증에서만 불공평인지가설이 적용된다는 선행연구(White, 1983; Yogev & Brett, 1985; Saenz et al., 1989)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편과 부인의 차이는 부인의 경우 역할의 변화와 역할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더 근대적인 역할태도를 가진데 비해 남편은 여전히 역할분리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있고 가정내 역할보충이 적은 경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생활에 따른 보상으로서 자원인지의 효과를 보면 부부 공통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우울증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않았다. 또한 부인집단에서 권력증가의 요인으로 부인소득의 효과와 함께 작용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이설을 적용하여 맞벌이부부 양방의 결혼만족도 및 부인의 권력지각을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도 및 직업 관련변수중 성역할태도는 부인의 우울증에 직접효과를 미치고, 직업만족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부부양방의 우울증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남편의 지지도는 부부양방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우울증에, 부인의 소득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각각 간접효과만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인의 취업동기와 부인의 직업지위는 경로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부부 공통적으로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밝혀졌기 때문에 추후 이들변수를 포함하여 직업 관련변수가 결혼만족과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하나 확인된 사실은 성생활만족, 성생활문제인지, 부부간 대화만족, 부부공동의 여가등 부부간의 상호작용 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직접 또는 간접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이중 성생활만족과 대화만족, 부부공동의 여가활동정도등의 변수는 선행연구들에서 일반부부의 결혼만족도에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기 때문에 부인의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거의 보편적으로 부부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긴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생활요인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 모두에 직접효과를 미쳐서 결혼만족도에는 성생활만족도가, 우울증에는 부인취업에 따른 성문제 인지정도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해서 성차도 발견된다. 특히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역할갈등이 성생활만족 또는 성생활문제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받으며 우울증에 대한 총효과에서도 부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성생활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고 특히 남편의 경우 결혼만족도와 역할갈등 및 우울증 모두에 성생활요인의 영향력 비중이 더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편 대화만족과 공동의 여가는 그 영향력에서 성차를 보였다. 즉 대화만족과 공동의 여가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만 직접효과를 미쳤을 뿐 부인의 우울증이나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는 간접효과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부간의 대화만족과 공동의 여가활동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만으로 볼때 부인의 결혼만족도에는 공평가설과 자원이설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갈등가설과 자원이설이 지지되었고, 부인의 우

울증에는 공평가설과 갈등가설이, 남편의 우울증에는 갈등가설이 지지되었다. 아울러 태도 및 직업 관련변수와 부부간 상호작용변수도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을 설명하는 유력한 요인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은 단일가설이 아닌 여러 가설과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변수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남편의 가사참여정도는 부인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 대화만족, 성역할태도에 의해 영향받는다. 부인의 역할갈등은 대화만족, 부부공동의 여가, 직업만족, 부부권력, 성역할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남편의 역할갈등은 부인취업에 따른 성문제인지, 부부공동의 여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둘째, 부인의 자원인지도는 부인소득, 부인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 성생활만족, 직업만족, 성역할태도에 의해 영향받는다. 남편의 자원인지도는 부인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 직업만족, 성생활문제에 의해 영향받는다. 부부권력에 대해 부인은 더 평등한 것으로 지각하고 부인이 지각한 권력은 부인소득과 자원인지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부부권력에 관한 자원이론가설이 지지되었다.

셋째,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중상수준이며, 우울증은 중간수준 미만이다. 부인이 남편보다 결혼생활에 덜 만족하며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한다.

부인의 결혼만족도에는 불공평인지가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외에 공동의 여가, 성생활만족, 자원인지, 대화만족, 직업만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인소득, 성역할태도, 남편의 지지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성생활만족이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외에 역할갈등, 자원인지, 남편의 가사참여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역할태도, 부인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 직업만족,

대화만족, 공동의 여가, 성생활문제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인의 우울증에는 역할갈등이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외에 성생활문제, 직업만족, 성역할태도, 불공평인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인권력과 대화만족, 공동의 여가는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친다.

남편의 우울증에는 역할갈등이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외에 남편의 가사참여, 성생활문제, 직업만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역할태도, 부인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 대화만족, 공동의 여가는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친다.

그러므로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여러가설의 지지여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갈등가설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부부양방의 우울증에서 지지되었고 자원가설은 부부양방의 결혼만족도에서 지지되었으며, 공평가설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서 지지되었다. 태도 및 직업 관련가설에서 성역할태도는 부인의 우울증에서, 그리고 직업만족 가설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부부양방의 우울증에서 지지되었다.

아울러 부부간의 상호작용 관련변수와 남편의 가사참여정도의 영향력을 종합해볼때 상호작용 관련변수중 대화만족과 공동의 여가, 성생활만족은 부인 또는 부부양방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인취업에 따른 성생활문제 인지는 부부양방의 우울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참여정도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인에게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본 연구는 맞벌이부부 양방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의 관련변수를 살펴보고 인과적 모형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을 시도하였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일반부부와 비교해서 맞벌이 부부는 부인의 역할변화에 따라 가정내 역할의 재조정과정에서 겪는 문제들과, 맞벌이생활에 따른 보상으로서의 자원, 그리고 부인의 직업과 관련되는 변수들이 독특하게 부부각자의 결혼만족과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부부와 마찬가지로 맞벌이부부도 부부간의 대화와 공동의 여가, 성생활이 결혼만족 또는 우울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결혼만족과 우울증에 관련되는 변수의 영향력에서 부부간의 차이와 역동적관계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의 제한점으로 공동연구의 성격상 많은 문항의 척도구성이 불가능하여 부분적으로 단일 문항의 척도를 사용하고 편의표본을 이용하였으며, 학동기자녀를 둔 부부만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과 우울증의 관련변수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한 관계로 심층적 분석이 미흡했다. 우리나라 맞벌이부부 양방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더우기 인과모형을 이용하여 관련가설들을 검증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탐색적인 성격을 가지며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맞벌이부부의 행복하고 원만한 결혼생활과 정신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을 줄이는 방안과 부인이 역할분담 특히 가사분담의 불공평을 적게 느끼도록 하는 방안, 남편의 가사참여가 더 많아지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남편들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와 권위의식이 개혁되어야 하고, 부인들의 성역할태도도 전통적인 것에서 좀더 탈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업주부에게 요구되는 슈퍼우먼형의 여성관에서 남녀 모두 벗어나 평등하고 동반적인 부부관계를 지향해야할 것이다.

둘째, 성생활만족과 부인취업에 따른 성문제인지가 부부의 결혼만족과 우울증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맞벌이생활에 따른 성문제 발생을 줄이고 원만한 성생활을 위한 부부양방의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부부간 대화를 증진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셋째, 직업만족도와 주관적 자원인지정도가 결혼만족과 우울증에 관련된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부부

각자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일과, 맞벌이 생활의 긍정적, 보상적 측면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강성희(1989), 취업주부의 직무만족도와 역할갈등도 연구 — 사무직 여성과 전문직 여성의 비교 —,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강수경(1985), 취업주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강은령(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 취업부부/비취업부부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구혜령(1990),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경숙(1987),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경아·이정우(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수준 및 관련변인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101-118.
- 7) 김미하(1990), 노동자가족의 성별분업,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론』, 까치.
- 8) 김성희·문숙재(1989), 자아실현성과 공동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남편과 부인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63-178.
- 9) 김순옥(1973),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김양희·박충선·서동인·신화용·조병은·최규련(1992), 학동기자녀를 둔 맞벌이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30(3), 285-306.
- 11) 도미향·최외선(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의사소통 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69-86.
- 12) 박미령(1987), 한국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서동인(1985),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

- 인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신성자(1981), 기혼 직업여성의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안선영(1988),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갈등과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안희순(1988), 맞벌이 부부의 역할수행과 역할 기대에 관한 연구 — 서울시내 탁아소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유가효 · 박혜인 · 조희금 · 박충선(1992),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 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Ⅱ), 대한가정학회지 30(1), 283-310.
 - 18) 이동원(1976),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7, 229-66.
 - 19) 이동원(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 이성희 · 김태현(1989), 성역할태도에 따른 부부간 가족역할구조 분석 — 서울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09-126.
 - 21) 이연숙 · 이순형 · 유가효 · 조재순(1991), 기혼 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 직업생활 갈등 및 부적응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4.
 - 22) 이연주(1984),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31-46.
 - 23) 이정우 · 김규원(1986), 저소득층 취업주부가정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성남시 취업주부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24(4), 163-178.
 - 24) 이진숙(1989), 남편과 부인이 지각한 부부의 상대적 권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이형실 · 옥선화 (1985),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31-44.
 - 26) 임정빈 · 이종숙(1989), 확대기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관리학회지 27(3), 117-132.
 - 27) 임정빈 · 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4.
 - 28) 전춘애(1989),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의 권력과 폭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7(3), 133-146.
 - 29) 조혜정(1981), 권력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취업/비취업주부의 연구, 한국사회학회지 15, 37-47.
 - 30) 최규련(1987),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1) 최규련(1990), 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Ⅲ 아동학 · 가족학』, 교문사, 183-209.
 - 32) 최규련(1991), 맞벌이가족의 부부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가정복지세미나 발표논문.
 - 33)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의 취업실태 조사 :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 34)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백서』.
 - 35) 홍두승(1983), 한국사회 계층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 36) Barnett, R. & Baruch, G.K.(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Feb), 29-40.
 - 37) Baruch, G.K. & Barnett, R.(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lif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78-585.
 - 38) Benin, M.H. & Agostinelli, J.(1988), Husband' and wives'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May), 349-361.
 - 39) Benin, M.H. & Nienstedt, B.C.(1985), Happiness in single and dual-earner families : The effect of marital happiness, job satisfaction and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Nov), 975-984.
 - 40) Berry, R.E. & Williams, F.L.(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 A path analytic ap-

- 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Feb), 107-116.
- 41) Bird, G.W., Bird G.A. & Scruggs, M.(1984), Determinants of family task sharing : A study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May), 345-355.
- 42) Broman, C.L.(1988), Household work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Aug), 743-748.
- 43) Burke, R.J. & Weir, T.(1976), Relationship of wives' employment status to husband, wife, and pai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May), 278-287.
- 44) Coverman, S. & Sheley, J.F.(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May), 413-422.
- 45) Ferree, M.M.(1988), Negotiating household roles and responsibilities : Resistance, conflict, and chang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46) Galambos, N.L. & Silbereisen, R.K.(1989), Role strain in West German dual-earner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May), 385-390.
- 47) Hiller, D.V. & Philliber, W.W.(1982), Predicting marital and career success among dual work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Feb), 53-62.
- 48) Kalleberg, A.L. & Rosenfeld, R.A.(1990), Work in the family and in the labor market : A cross-national, reciproc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May), 331-346.
- 49) Keith, P.M. & Schafer, R.B.(1985), Role behavior, relative deprivation and depression among women in one and two-job families. *Family Relations* 34(Apr), 227-234.
- 50) Kelly, R.F. & Voydanoff, P.(1985), Work/family role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29(Oct), 473-480.
- 51) Kingston, P.W. & Nock, S.L.(1987), Time together among dual 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391-400.
- 52) Maret, E. & Finaly, B.(1984),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among women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May), 357-364.
- 53) Menaghan, E.G. & Parcel, T.L.(1991), Parental employment family life : Research in the 1980s. pp.361-380 in A. Booth(ed.), *Contemporary Families : The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54) Mirowsky, J.(1985), Depression and marital power : A equity mod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557-592.
- 55) Pleck, J.H.(1985), *Working Wives/Working Husband*. Sage Publications.
- 56) Saenz, R., Goudy, W.J. & Lorenz, F.O.(1989),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marital relations on depression among Mexican American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Feb), 239-251.
- 57) Seccombe, K.(1986), The effects of occupational conditions upo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 An application of Kohn'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Nov), 839-848.
- 58) Sexton, C.S. & Perlman, D.S.(1989), Couples' career orientation, gender role orientation and perceived equity as determinants of marital pow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Nov), 933-942.
- 59) Snyder, D.K.(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Nov), 813-823.
- 60) Spitze, G.(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Aug), 595-618.
- 61) Stanley, S.C., Hunt, J.G. & Hunt, L.L.(1986),

- The deprivation of husbands in dual-earner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Issues* 7, 3-20.
- 62) Thomas, S., Albrecht, K. & White, P.(1984), The determinants of marital quality in dual career couples. *Family Relations* 33(Oct), 513-522.
- 63) Thompson, L.(1991), Family work : Women's sense of fair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2(2), 181-196.
- 64) Thompson, L. & Walker, A.J.(1991), Gender in families :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pp.76-101 in A. Booth(ed.), *Contemporary Families :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65) Tiedje, L.B., Wortman, C.B., Downey, G., Emmons, C., Biernat, M & Lang, E.(1990), Women with multiple roles : Role-compatibility perceptions,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Feb), 63-72.
- 66) Ulbrich, P.M.(1988), The determinants of depression in two-income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Feb), 121-131.
- 67) Voydanoff, P. & Donnelly, B.W.(1989), Work and family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Nov), 923-932.
- 68) Voydanoff, P. & Kelly, R.F.(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Nov), 881-892.
- 69) Walter, C.M. & McKenry, P.C.(1985),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rural and urban employed mothers : A research not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Nov), 1067-1071.
- 70) Warner, R.L., Lee, G.R. & Lee, J.(1986), Social organization, spousal resources and marital power :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Feb), 121-128.
- 71) White, L.K.(1983), Determinants of spousal interaction : Marital structure or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Aug), 511-520.
- 72) Yogeve, S. & Brett, J.(1985), Perceptions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ca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Nov), 609-618.